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54번째 선지식 '생텍쥐페리'

선재동자와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는 선재동자를 보고 어린왕자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오행산에서 풀어주어 제자를 만들어 서역으로 떠나는데, 가는 길에 여섯 명의 강도를 만난다. 강도들을 본 손오공은 그들을 모두 때려죽인다. 손오공의 살생을 본 삼장은 엄히 꾸짖는데, 손오공은 버럭 화를 내고 떠나 버린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석가세존이 만드신 세 개의 머리테를 건네는데, 그것이 바로 긴고아와 금고아 등이다. 그리고 긴고주와 금고주를 외우면, 그 테는 머리를 파고들어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겪는다.

그리하여 옥황상제도 어찌 못하는 신통력을 지닌 손오공은 순한 양처럼 삼장법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두 개의 머리테는 서역길에서 만난 흑풍산 흑풍괴와 화염산의 홍해아에게 씌워지는데, 여기부터 흥미진진한 사실이 전해 온다.

사하라 사막 조종사와의 만남 보현행원 찾는 구법행의 하나

흉악한 바람으로 삼장 일행을 괴롭힌 흑풍괴는 금고아를 쓴 뒤 관음보살이 거주하는 낙가산을 지키는 수산대신이 된다. 관음보살은 우마왕과 나찰녀의 아들 홍해아에게 금고아를 씌워 제압한 뒤 선재동자로 삼는다.

즉 낙산사를 지키는 보타락가산 산신은 흑풍괴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 고려불화의 수월관음도마다 그려져 관세음보살을 시봉하는 홍해아는 선재동자가 된 것이다. 홍해아가 살던 화염산(火焰山)은 사실 신장 자치구의 텐산 산맥에 위치한 붉은 사암 언덕이다.

여름이면 지금도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는 불덩어리인 이 산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상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 수행하던 승려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8미터 크기의 삼장법사 일행과 우마왕들의 동상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충선왕 2년(1310)에 그려져 왜구에게 약탈당해서 지금은 일본 경신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가미진자 수월관음도에 보면, 머리에 띠를 달고 있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수월관음도인 이 탱화를 그린 여러 화원들은 이미 선재동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화엄경에 따르면 선재동자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한다. 구도의 열정에 불타는 선재는 "원컨데 저에게 해탈의 문을 열어 주시고 모든 뒤바뀐 헛된 꿈을 멀리 여의게 해주소서(願開解脫門 遠離諸顚倒)"라고 문수보살에게 간청한다.

그 간청을 받은 문수보살은 "깨달음의 높은 뜻을 발하여(發菩提心) 선지식을 구하고(求善知識) 보현행원을 갖추어라(具足普賢行願)"라고 충고해 준다. 즉 선재동자는 화엄사상을 실천하는 전방위의 보살인 것이다.

이런 선재동자와 어린 왕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1943년 발표한 소설인 〈어린 왕자〉는 사실 그가 수월관음도의 선재동자를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한다.

지금은 저작권도 없어서 많은 출판사들이 아직도 다투어가며 작자가 직접 그린 아름다운 삽화를 넣은 많은 판본들이 시중에 넘쳐난다. 현재까지 180여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아직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자기의 작은 별에서 여러 별을 거쳐 지상에 내려온 어린 소년왕자와 만난다. 비현실적인 이 만남은 실은 선재동자의 구법행의 하나이고, 그 조종사 쌩떼쥐베리는 쉰네번째 선지식이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소설속에서 말한 대사들은 지금도 주옥(珠玉)처럼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탁해져버린 어른의 세계에서 다시 한 번 순수와 원형으로 돌아가는 지침이 되어준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릴 적 읽은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100년 격동기 지켜낸 '문화재 이야기'

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거치며 지켜낸 불교 문화재 140점 전시 불교중앙박물관…12월 9일까지

1997년 문경 김룡사 화장암에서는 절도범과 마주친 스님들이 도난범과 사투 끝에 진영 3점을 되찾는다. 도갑사 목조문수보현보살상과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도난이 미수에 그쳐 가까스로 문화재를 지켜냈다. 무량사 삼층석탑에 봉안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지장보살좌상, 충북영동 영국사의 영산회상도 등은 재판을 통해 되찾은 문화재의 예다.

지난 100년, 우리의 역사는 혼돈 그 자체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왔다. 시대의 격동기, 우리의 문화재 또한 적지 않은 곡절과 수없는 사연을 담고 격동기를 거쳐 왔다.

때로는 약탈당했고, 때로는 소실되었고 때로는 훼손됐다. 지난 100년 우리 문화유산이 걸어온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은 전시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 스님)은 10월 17일~12월 9일까지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을 연다. 불교문화재 131건 140점(국보 1건, 보물 10건, 시도유형 7건 포함)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단순한 문화재의 나열이 아니라 시대적 의미를 부여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전시는 ▷Ⅰ근현대사 역사 속의 문화재 수난 ▷Ⅱ되찾은 문화재 이야기 ▷Ⅲ한국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수난 ▷Ⅳ되살린 문화재 이야기로 나뉘어 관람객을 찾는다.

'Ⅰ근현대사 역사 속의 문화재 수난'은 해외로 유출되었다가 돌아온 불교문화재를 선보인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상당수의 문화재가 조직적으로 약탈되거나, 도난 당해 국내외로 반출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직까지 그 과정에 대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1965년 한일협정과 불교계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은 문화재 환수 운동 등이 있어 왔다.

'Ⅱ되찾은 문화재 이야기'는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불교문화재에 얽힌 사연들을 작품과 함께 담았다. 이들은 제 각각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고 있다. 고창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좌상과 참당암 동종 등은 절도범이 죄책감에 스스로 원 소장처로 문화재를 돌려보낸 경우다. 이는 불교문화재에 깃든 종교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10월 17일~12월 9일까지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을 연다. 사진은 도갑사 문수보현동자상.

'Ⅲ한국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수난'은 한국 전쟁 중 무수한 고난을 이기며 지켜낸 문화재 이야기를 담았다. 전쟁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다. 군과 경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절을 폭격하고 소각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슬러 천년 고찰과 문화재를 지켜냈다. 작전상 절을 불태우려는 군인들에 대항해 목숨 걸고 사찰을 지켜낸 스님, 문화재를 땅에 묻어 전쟁의 광기에서 보호한 스님들도 있었다. 제3부에서는 이런 노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우리에게 전해진 문화재와 그에 얽힌 사연을 선보인다. 또한 'Ⅳ되살린 문화재 이야기'는 보존처리를 통해 되살아난 지류 · 금속 · 석조 등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를 선보인다. (02)2011-196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국사 해체 복원 과정 한눈에"

한양대박물관 '한국건축문화재…'

복원 공사 40주년 기념 특별전 현장 감독 유용문 씨 자료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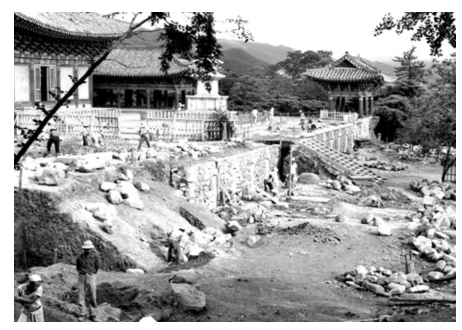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문화유적답사가 대중화된 이후 건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일반인들 대부분 건축문화재가 어떻게 유지 관리 되고 복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한양대박물관이 문화재의 복원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양대학교박물관과 동대학 건축학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이 10월 15일~2013년 2월 23일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건축문화재가 어떻게 유지, 관리되며 복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불국사를 통해 본 건축문화재 복원 과정이다. 해방 이후 첫 대규모 복원사업이었던 '불국사의 복원'은 중요한 시대적 상징성을 지닌다. 특히 당시 불국사 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현존하는 복원 과정과 단계를 이번 전시에서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전시되는 상당수의 관련 자료들은 1970년대 당시 실제 복원공사의 현장 감독이었던 유문용 씨가 일괄 기증한 자료들이다.

한양대 박물관은 "올해는 불국사 복원공사가 완료된 지 40주년이 된다. 문화재 복원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불국사 복원공사 관련 서류와 도면으로 꾸민 코너를 따로 마련했다. 기타 목조건축문화재의 복원 사례와 그 활용 유형을 정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문화재 복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한 국가적 사업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당시의 자금과 기술력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대내외적 정세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은 10월 15일~2013년 2월 23일까지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사진 왼쪽은 경주불국사 70년대 장면, 사진 오른쪽은 현재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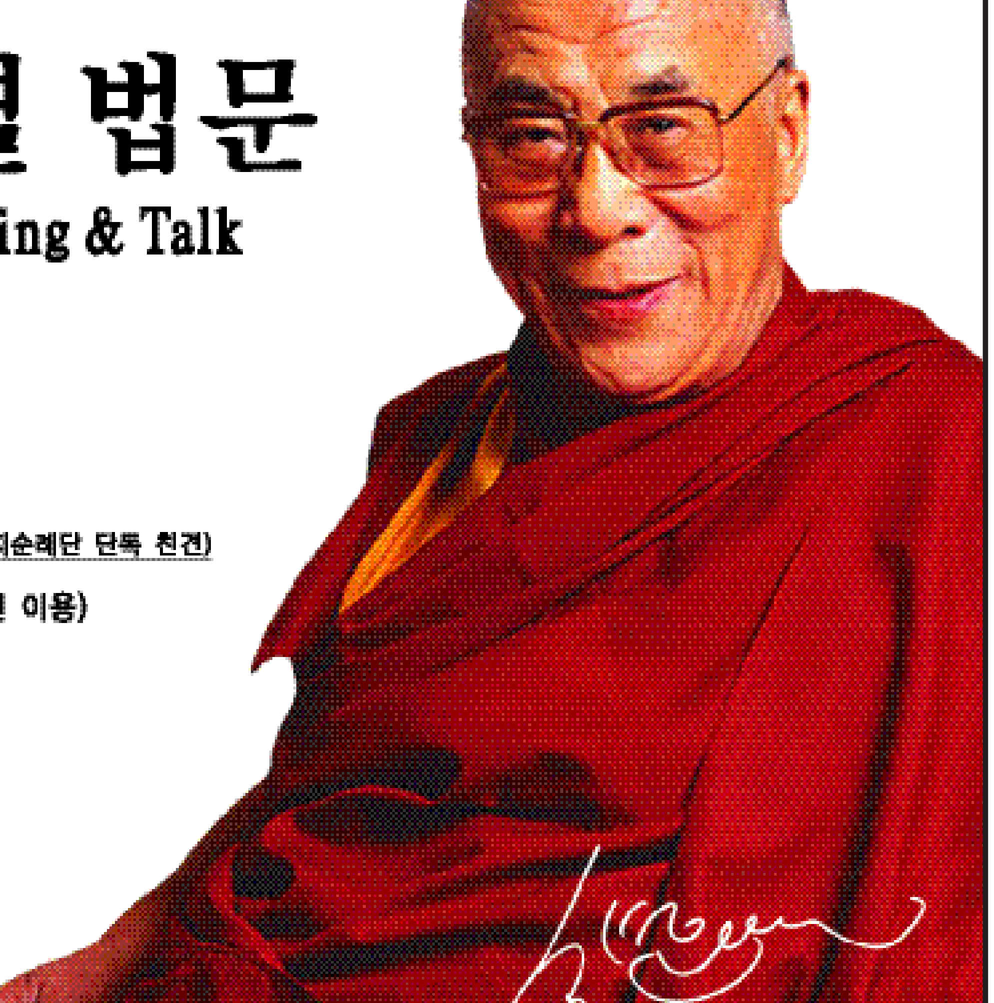
불국사의 복원과정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복원을 둘러싼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왜 복원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해체 보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철학적 기술적 차원의 종합적 배려가 필요했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덕사 대웅전 수복 전후 과정 등을 통해서 본 '복원의 다의성과 다양한 방법론' ▷복원된 건축문화재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자료에 보이는 건축문화재' ▷펜화에 담긴 건축문화재를 살펴보는 김영택 화백의 초대전 등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TN 세상을 맑게 하는 방송 불교TV 와 함께하는 해외성지순례
성지순례 및 법회입장권 문의
문화사업국
02.3270.3333

[BTN불교TV 성지순례단을 위한 특별 친견]
달라이라마 일본 특별 법문
His Holiness The Dalai Lama's Public Teaching & Talk



일 정 : 2012년 11월 3일(토) ~ 11월6일(화) 3박4일
법회일정 : 4일(1부-법문:마음을 단련하는 여덟편의 시 / 2부-강연:마음수련:사회를 번영시켜 더 좋은 인연으로..), 5일(불교TV 성지순례단 단독 친견)
출 발 : 인천공항-10시10분 출발(대한항공KE703편 이용) / 김해공항-10시50분 출발(대한항공KE715편 이용)
비 용 : 서울1,420,000원/부산1,400,000원(법회비 300,000원 별도.)
*기사+가이드팁 포함, 단)개인적인 호텔내 팁 및 생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및 상세스케쥴은 홈페이지(www.btn.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우스님(불교TV회장)과 현각스님(독일 불이선원 선원장)을 모시고
출발하는 이번 성지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불교TV에서는 매달 부처님 법향을 따라 국내외 성지순례를 하며,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이제 불교TV와 함께하세요!